

# 트럼프 시대 예측불허... '미국 우선주의' 세계가 긴장

## '고립주의' 외교·안보·경제정책 보니

### 북한 압박 수위 저울질... 불법이민자 추방 시도 감세·규제 해제... 한미 FTA 등 무역 협정 제동

'미국 우선주의'와 미국의 대외문제 개입을 꺼린다는 '고립주의'는 트럼프의 공약 곳곳에도 잘 드러나 있다. 트럼프가 백악관 집무실 '오벌 오피스'의 대통령 책상 앞에 앉은 뒤에는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추진해 왔던 주요 정책의 방향이 크게 바뀐다는 점은 불가피해 보인다.

◇ 외교·안보분야=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분야 공약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동맹 상대국에 대해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물리겠다는 계획이다.

트럼프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북대서양 조약기구(나토)에 대해 '무용론'을 폈고, 한국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주한미군 주둔비용 100% 분담'을 주장해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기존 동맹국들은 고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공화당 정강에 북한을 '김씨 왕조의 노예 국가'라고 명시한 점은 트럼프 정부가 대북 강경 기조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유럽이나 중동 같이 미국의 이해관계가 걸린 다른 지역과의 자율적 과정에서 어떻게 입장을 바꿀지는 불확실하다.

## 트럼프 주요 정책 방향

**외교안보 정책**

- 현재 중립적 '불공정 관행' '구조적 불공정'을 조장하는 동맹국이 더 많은 부담을 주는 쪽으로 동맹의 관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힘
-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체제외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체제외로 일방적으로 인보통 의존하고 있다는 시각

**한미동맹**

- 기존 동맹 시스템 리셋(재설정), 현 정책 재평가
- 주한미군 병력 비 부담 압박, 일방적 시험철수 등

**비확산 체제**

- 상향에 따라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유인할 수 있다는 우려의 발언

**북한 핵문제**

- 북한 자체를 직접 상충하지 못할 대상으로 인식하면서 중국을 통해 북한을 고립 또는 봉쇄해야 한다는 시각

**경제정책**

- 기업과 부자에 대한 감세 방안
- 소득 최상위 계층의 세율을 38.6%에서 25%로 대폭 인하
- 개인소득 2만 달러, 부부 합산 5만 달러의 저소득층에게는 연방 소득세를 모두 면제
- 상속세와 법인세 각각 폐지나 감축 예정

**자유무역 협정**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에 부정적 입장 표명하고 재협상할 수 있음을 시사

**이민자 정책**

- 불법이민자들로 인해 테러와 범죄 발생,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주장
- 백인들의 편에 부유한 이민자 인종적
- 멕시코 불법이민자를 막기 위해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겠다고 공언

안보 분야에서는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 설치'와 더불어 미국으로의 이민을 까다롭게 만들 것이라는 공약이 가장 두

드러진다. 불법이민자들의 추방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먼저 실시될 만한 정책들 중 하나로 꼽힌다. 최대 11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불법이민자들 중 상당수를 실제로 추방시키려 시도함으로써 미국인들에게 공약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 경제분야=트럼프의 경제 공약을 관통하는 기조는 '규제 해제'다. 조세 정책에서는 감세, 금융업계에 대해서는 금융규제 철폐, 그리고 에너지 분야에서는 화석연료 개발에 대한 그동안의 제한을 풀겠다는 게 트럼프의 대표적인 주장들이다.

소득 최상위 계층의 소득세를 33%로, 최고 35%인 법인세를 15%로 각각 인하한다는 감세 구상은 트럼프 경제 정책의 핵심이다. 특히 금융규제 철폐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반복했던 공화당의 기존 지도부와 대통령 트럼프가 취임 초기에 일찌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몇 가지 사안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다.

트럼프 정부에서는 또 '키스톤 송유관'으로 대표되는 화석연료 개발 사업이 '순풍'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 분야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나 기존 협정 파기 시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였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운명은 '바람 앞의 촛불'이 될 전망이다. 한미FTA 역시 대대적인 개편이라는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 '금수저 문제아'서 세계의 대통령으로

### 트럼프는 누구

1946년 독일계 이민자 2세의 차남으로 태어난 트럼프는 유년기부터 자존심이 강하고 지는 것을 싫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지나친 승부욕이 학교에서의 일탈 행위로 계속 표출되자, 트럼프의 부친 버지 드레드 트럼프는 '문제아' 아들을 일한 고등학교 대신 '뉴욕 군사학교'로 보냈다. 뉴욕군사학교 졸업 후에는 뉴욕의 포덤대학을 거쳐 미국 명문대학 중 한 곳인 펜실베이니아대 경영대학원인 와튼 스쿨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

대학 졸업 직후 아버지와 함께 부동산 사업에 손을 대면서 돈을 벌었고 1971년 아버지에게서 '엘리자베스 트럼프 & 선'의 경영권을 물려받은 뒤 사명을 지금의 트럼프그룹(The Trump Organization)으로 바꿨다.

현재 자신의 이름 '트럼프'를 내건 호텔과 골프장, 카지노 등을 운영하고 있다. 경제전문지 포브스 추산 기준으로 37억 달러(약 4조2000억 원)의 재산을 가진 트

럼프지만, 뉴저지 주 애크레틱 시티에 타지마할 카지노를 세웠다가 도산하는 등 1991년부터 2009년까지 4차례의 도산을 겪기도 했다. 사업에 전념할 때의 트럼프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보다 편의에 따라 지지 정당을 바꾸는 모습을 보였다. 공화당 당적을 가졌다가 개혁당, 민주당을 거쳐 2009년 공화당으로 돌아왔으나 이후 탈당했고, 2012년에 다시 공화당에 입당했다.

트럼프는 2000년 개혁당 경선에 출마했으나 중도에 포기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6월 16일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공식으로 선언했다. 출마 선언 당시에는 한 자릿수 초반대의 미미한 지지율과 TV 쇼 출연자로 유명해졌다는 점 때문에 정치가 아닌 유명세를 좇아 '튀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치부됐다.

그러나 트럼프는 쟁쟁한 부류에 16명의 경쟁한 경쟁자를 차례로 꺾고 끝내 대권후보 자리를 거머쥐었고,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는 날까지 클린턴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연합뉴스

## 美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소속 공화당  
출생 1946년 6월 14일(71세) 뉴욕 퀸즈

3400억원대 자산가 아버지와 트럼프

경력 기업인·방송인·정치인  
트럼프기업 회장·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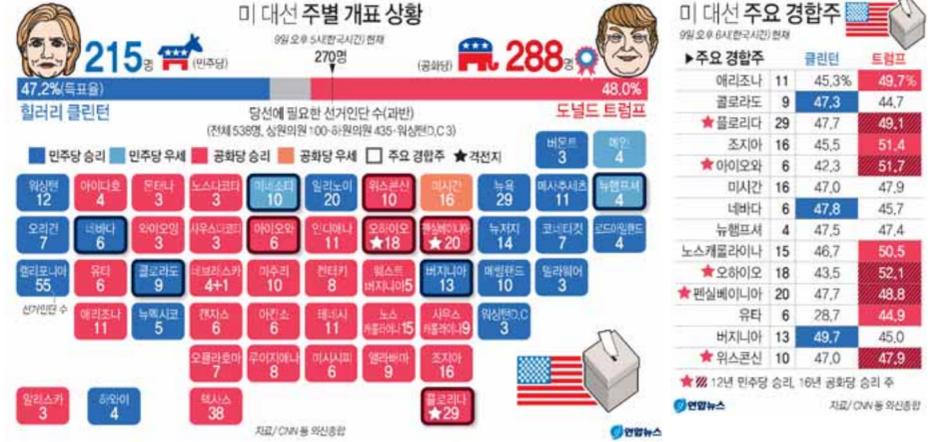
그의 유행어 "넌 해고야"

2004~2014년 TV쇼 '어프렌티스' 진행

배우자 멜라니아 나우스 (2005년 3번째 결혼)

2005년 함께한 트럼프·클린턴 부부

지지기반 백인 보수층



## 숨은 표심 '샤이 트럼프' 결집 주요 경합지 대승

### 빛나간 여론조사 왜?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와 클린턴은 엇치락 뒤치락 하며 접전을 보였지만, 대선일이 다가오면서 클린턴은 견고한 우세를 보였다. 클린턴은 '결전의 날'을 하루 앞둔 7일 각종 여론조사에서 1~6%포인트의 우위를 지키며 당선 확률 80~90%를 찍었다. 버지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를 비롯해 주요 경합지에서 트럼프와의 지지율 격차를 벌리며 상승세를 탄 것으로 나타났다. 경합지에서 결과가 여론조사 때와 달랐던 것은 예측이 빛나간 주요 요인이 됐다. 여론조사에서 1%포인트 가량의 박빙이 예상됐던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트럼프는 큰 격차로 앞서 선거인 15명을 가져갔고, 오하이오에서는 여론조사에서 경합지로 불렸

던 것이 무색할 만큼 트럼프가 확고한 우세했다. 그러나 개표가 시작되면서 트럼프가 우세를 이어가자 뉴욕타임스(NYT)는 클린턴의 당선 가능성을 41%로 대폭 낮추고,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은 16%로 59%로 올려 잡았다. 그리고 결국 승리는 트럼프에게 돌아갔다. 이같은 결과는 여론조사가 숨은 유권자들을 포착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브렉시트' 국민투표 당시 영국에서는 빛나간 여론조사 예측의 한 원인을 '숨은 보수 표', 이른바 '샤이 토리'(shy Tory) 유권자에서 찾았는데, 이번 미국 대선에서도 '샤이 트럼프'(shy Trump)' 현상이 나타났다. '샤이 토리'는 1992년 영국 총선 직전 최종 여론조사에서 보수당이 1% 포인트

차이로 노동당에 지는 것으로 예측됐지만, 실제 투표에서는 7.6% 포인트 차로 이긴 데서 나온 말이다. 인기 없는 정당, 정치적 올바름과는 거리가 있는 정당을 찍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껴 실제 표를 던질 때까지는 여론조사 원은 물론 경우에 따라 스스로에게도 어느 쪽을 택할지 입장을 일 박에 내지 않는 유권자를 말한다. 트럼프가 그동안 각종 인종, 종교, 여성 차별적 발언과 막말, 음담패설 파문 등으로 끊임없이 논란을 빚었다는 점에서 그의 지지자들 역시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꺼릴 것이라는 추측인 셈이다. 결국, 앞선 지지율 여론조사는 물론 '샤이 트럼프'의 영향력을 미미하게 평가한 예측마저도 또다시 보기 좋게 빛나간 셈이 됐다. /연합뉴스

## 결승선 직전서 날아간 첫 여성 대통령 힐러리, 이메일 스캔들·건강 문제 등 결정적 패인

미국의 첫 여성 대통령이라는 새 역사를 쓰는 듯했던 힐러리 클린턴이 '결승선' 직전에 무너졌다. 트럼프는 "클린턴이 전화 걸고 대선 승리 축하했다"고 언론에 소개했다. 대선 전날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1~6%포인트의 우세를 보였다. 그러나, 로이터-이소스가 예측한 당선 가능성은 90%,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내놓은 승리 가능성은 84%였다. 여론조사마다 트럼프와의 격차가 오차 범위 안팎의 초점점으로 나타났지만, 결

국 클린턴이 신승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던 게 사실이다. 선거 전날에는 클린턴의 최대 아킬레스 건인 '이메일 스캔들'을 재수사한 미 연방수사국(FBI)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먹구름이 완전히 걷히는 듯했다. 이 때문에 클린턴의 패배는 이번 대선의 최대 충격으로 받아들여질 만하다. 레이스가 본격화되며 시작된 다방면의 언론 검증과, 이메일 공개로 드러난 새로운 팩트들이 클린턴의 발목을 잡았다. 건강 문제도 불거졌다. 9·11 추모행사

에 참석했다가 폐렴과 탈수로 뒤엎이며 차량에 실려 나가면서다. 2012년 뇌진탕 중세 후 혈전이 발견되면서 한 달여 입원을 중단하기도 했는데 이번 선거전으로 건강이상설이 다시 증폭됐다. 국무장관 퇴임 후 고액 강연료가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을 시작으로 가족자산재단인 '클린턴재단'이 외국 정부로부터 기금을 기부받고, 기부를 한 해당 정부 인사들을 따로 만나준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통령으로서 공정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떠올랐다. /연합뉴스

## 무안출발은 조이투어로~

### 비행기보다 오래 타는 버스는 이제 그만~!

### 이제부터 무안에서 편안하게 떠나세요

**여행길의 즐거운 동반자!!**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1층  
Tel. (062)234-3222 Fax. (062)234-3141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http://www.joytour.kr

대표이사 최금환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추천1. 무안-일본(기타큐슈, 오사카/북해도) 직항 전세기**

★ 무안공항출발! 초특가 규슈여행 ★

**548,000원부터~**

출발일: 2016.12.16~2017.2.26/3박4일 ※설연휴 별도문의

[통격]기타큐슈 야마구치/미야지마 **838,000~**

[통격]남큐슈 미야자키/가고시마 **998,000~**

**추천2. 무안-라오스 직항 전세기**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가장 가고싶은 곳 1위!!**

**1,398,000원부터~**

출발일: 2016.12.28~2017.1.21/3박5일

[항공]벤네티엔/루앙프라방 **1,498,000~**

[항공]벤네티엔/방비엥/루앙프라방 **1,548,000~**

**추천4. 무안-대만 직항 전세기**

출발일: 2016.12.7~2017.2.26/3박5일

[실속]타이페이/야류/화련/지우펀 **699,000~**

[통격]타이페이/야류/화련/지우펀 **799,000~**

[실속]타이중/야류/화련/지우펀 **899,000~**

[통격]타이중/야류/화련/지우펀 **999,000~**

**<일본 전세기 특전>**

스타플라이어항공 / 기종: A320-200 / 좌석: 150석

★한별제품★  
한별메뉴 고급 여행가방 증정!  
(4인 가족 기준 1개 증정)  
※실속 상품은 제외

**추천3. 무안-다낭 직항 전세기**

출발일: 2016.12.30~2017.2.24/3박5일

[관광]다낭/호이안/후에 **1,149,000~**

[골프]다낭 골프 54홀 **1,649,000~**

※공통포함사항: 왕복항공료, TAX, 전일정식사, 관광지입장료, 숙박, 여행자보험, 기사 및 가이드팁

※공통포함사항: 여권 및 개인비용(골프상품만 클럽 증정 포함)

**★항공특가(항공권편도) 선착순 5명★**

무안↔기타큐슈: 편도 79,000원부터~

무안↔오사카: 편도 98,000원부터~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동행복음] 제공 2003-1호

※교통: 항공 및 선박 운임표/전차역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율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금지 가입업체 ※역시 계약서(해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항공비(해소규정), 각종 비자비용 별도 ※최소 출발인원: 상용에 따라 다름

이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